

# 의원 48명 제2지역구 배정...국민의힘, 호남 끌어안기 본격화

호남동행 국회의원 발대식  
주호영 "잘하겠다...죄송하다"  
5·18단체 간담회·지도부 방문  
스킨십 늘리고 현안 챙기고  
이형석 "5·18 특별법 처리부터"

보여준다면 국민의힘이 다시 전국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후 5·18 단체와 간담회, 지도부의 호남 방문 등 일정을 추진하며 호남과의 접촉면을 늘려갈 방침이다. '호남 동행'에 참여하는 의원 가운데 광주주는 윤영석·장재원·이재익·윤재욱·하태경·김은혜·김용판·김예지 의원이 배정됐다. 또 목포 김기현 의원, 여수 김도승·하영제 의원, 순천 김용·김영식 의원, 나주 김형동 의원, 광양 배현진 의원, 담양 이영 의원, 곡성 황보승희 의원, 구례 전통민 의원, 고흥 권명호 의원, 보성 이명수 의원, 화순 이만희 의원, 장흥 임이자 의원, 강진 서정숙 의원이 각각 배정됐다.

이 밖에 도 해남 강대식 의원, 영암 최승재 의원, 무안 엄태영 의원, 함평 정희용 의원, 영광 서범수 의원, 장성 조해진 의원이 제2 지역구를 배정받았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호남 끌어안기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보수 정당 대표 사상 처음으로 5·18 국립묘지 앞에서 무릎을 꿇어 사과했고, 전남에 수해가 발생했을 때는 김 비대위원장과 주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여당보다 먼저 구례·섬진강 지역으로 달려가 수해 복구 자원봉사 활동을 벌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호남 제2지역구를 배정받은 8명의 의원이 힘을 합쳐 광주의

현안과 예산을 챙기는 등 광주 발전을 도울 계획"이라며 "그동안 호남지역 선거에서 중량감 있는 국민의힘 후보군을 찾아 보기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이들 의원이 호남에서 활동하면서 차세대 정치인들을 찾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형석(북구) 국회의원은 "국민의힘의 호남 다가서기가 진정성을 확보하려면 선결과제가 있다. 5·18 관련 법 국회 처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5·18 유공자를 '세금을 추내는 괴물집단'으로 매도한 망인 정치인들도 당내에서 축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3일 전남도가 서울에서 개최한 '전남지역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간담회'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의대 설립 등 지역 숙원 풀어달라" "원팀 대 현안 해결·국비 확보 최선"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16개 정책·26개 현안 반영 건의

전남도는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예산·정책 간담회에서 의과대학 설립 등 지역 현안 사업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전남도가 건의한 정책 및 사업 지원 건의는 모두 16건으로, 지역민 30년 숙원인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이 건의 사업 리스트 첫머리에 올랐다. 그린뉴딜 전남형 상생 일자리 사업, 차세대 대형 원형 방사광 가속기 구축,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유치, 지방 재정 분권 관련 개선,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목록에 포함됐다. 전남도는 또, 한전공대 정상 개교 추진, 흑산공항 조기 건설, 한국 섬 진흥원 설립,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지방소멸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섬진강유역환경청 설립 등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요청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권 의대 설립과 관련해 "최근 정부의 국립 의과대학 설립 원점 재논의가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신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200만 전남도민의 염원과 지역 의료계의 공과대가 형성된 만큼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삼급 종합병원이 없는 전남에 국립 의과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원자력발전소 8개 규모에 달하는 8.2GW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해 "그런 뉴딜의 대표사업인 해상풍력발전단지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통해 서남해안에 8.2GW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해 전남형 상생 일자리 12만개 창출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성공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언급하면서 지원을 당부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전남도는 정부안 예산이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건의했다.

예산 확보 지원 건의 사업은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사업, 202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개최 지원, 광양항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구축, 국립 심뇌혈관센터 설치, 유·무인기 통합 인증시험 인프라 구축, 국립해양수산물관 건립,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해상풍력발전단지 공동접속 설비 구축 지원,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 고속철 건설 사업 등이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의 경우 현행 2800m 활주로를 3200m 이상으로 늘리는 것으로 150억원의 예산 반영을 건의했으나 정부안에는 20억원만 편성됐다.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 고속철 건설사업은 1134억원을 건의했으나 정부안에 187억원만 반영돼 사업의 조기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난 7월 말 정부로부터 국제행사도 최종 승인받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련 예산은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박람회 총사업비 485억원 중 내년도 예산으로 건의한 인프라 구축사업비 20억원이 정부안에서 제외된 것이다. 국립 심뇌혈관센터 설치 사업, 국립 섬 발전연구진흥원 설립 관련 내년도 사업비(각각 167억원, 15억원) 역시 전액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김승남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들은 "전남지역 전역에 관련된 현안사업에서 원팀이 돼 국비 확보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호남동행 국회의원 발대식'에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은영의 '그림 생각'**

(330) 사과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날씨는 아직까지도 농경시대 절기에 맞춰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8월의 경우 한창 무더워야 할 날씨임에도 선선했던 이유가 음력으로 6월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올해는 윤년이면서 윤달이 들어있는 해이기도 했던 까닭이다. 일상생활은 양력이 지배하지만 우리의 의식과 문화는 여전히

### 태풍에 상처 입은 사과도 꺾어 먹으니 달콤

달의 주기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가오는 추석 역시 음력으로 날짜를 헤아려야 해서 새삼 윤일과 윤월, 윤년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올해 추석은 코로나19와 잇따른 태풍 피해로 여는 해와는 달리 마음 싸야할 것도 많아 보인다. 얼마 전 태풍에 상처 입어 흉결이 있는 사과를 지인의 부탁으로 구입한 적이 있는데 멍든 사과도 꺾어먹으니 그러대로 달콤했다. 카미유 피사로(1830-1903)의 '사과 따는 사람들'(1888년 작)은 지금 우리 현실에서 보면 참 한가롭게 보이는 작품이다. 전원을 배경으로 사과나무 한그루

가 있는데 아들이 밭에서 보이는 청년이 장대로 사과를 흔들어 따고 땅에 떨어진 사과를 주위 바구니에 담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이 무척 정겹게 보인다. 얼마나 열심히 사과를 따던지 커다란 광주리 세 개에는 사과가 벌써 가득 차있고 그러고도 사과나무 밑에 탐스런 사과가 떨어져 널려 있다. 아들의 어머니일까? 오른편 아낙은 두 손을 나발모양으로 모아 어디에 더 영근 사과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듯하다. 인상주의의 창시자로 여겨질 만큼 인상주의 사조에서 중요한 화가였던 피사로는 세잔과 고갱이 스승이라 부를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던 작가. 후배화가들에



카미유 피사로 작 '사과 따는 사람들' 계는 여러 조언을 하면서도 스스로는 조르주 쇠라와 폴 시냐크의 점묘법 등의 과학적 인상주의를 수용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화풍을 보여주었다. '사과 따는 사람' 역시 쇠라에게서 새로운 이론을 접하고 점묘법으로 그린 작품이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사 범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총 계		93	29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0. 9. 23(수) ~ 28(월)  
· 전형 일: 2020. 10. 12(월)

·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 7(목) ~ 11(월)  
· 전형 일: 2021. 1. 18(월)